

신-해체주의 패션의 미적 가치에 대한 연구

- 베트멍, 마르케스 알메이다, 자크뫼스를 중심으로 -

김 성 은 · 하 지 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수료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다시 부각되고 있는 신-해체주의 디자이너의 등장 배경과 표현 특성을 밝혀내고, 20세기말에 성행하였던 해체주의 패션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신-해체주의만이 내포한 미적 가치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특히, 신-해체주의 미적 가치를 분석함에 있어 신-해체주의 디자이너 인터뷰 내용분석을 근거로 하였다. 신-해체주의 패션의 등장 배경으로는 다르지 않은 평범함을 추구하는 님코어 패션에 대한 회의감, 디지털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다양성에 대한 관용의 증가 그리고 사회·문화적 불안감을 흥미와 재미로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체주의와 신-해체주의의 공통된 표현 특성을 바탕으로 신-해체주의 미적 가치를 20세기 해체주의와 비교·분석한 결과 ‘시·공간의 재조합’의 미적 가치는 집단화된 코드를 바탕으로 익숙하지만 낯선 이미지를 제시했던 해체주의와 달리 신-해체주의는 이질적인 코드를 바탕으로 디자인의 신선함을 드러내었으며, ‘성 경계의 해체’의 표현 특성을 통하여 양성의 경계의 해체를 넘어서 다양한 성의 수용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하위문화의 재조합’을 통해서 저항을 위한 하위문화 이용이 아닌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하는 하위문화 스타일을 선보였으며, ‘비확정적인 착장 방식’을 통하여 완결된 형태의 거부나 아닌 소비자의 개별적 개성을 수용하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식의 구조 및 디자인 원리 해체’의 표현 특성을 통해서 전통적 이상미를 거부하기보다는 재미와 유희의 미를 포용한 디자인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신-해체주의 디자인은 일상적인 아이টে를 바탕으로, 대중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틸리티 있고 신선한 패션디자인이다. 이 연구는 국내의 패션 브랜드들에게 새로운 상품 기획 및 디자인 자료의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신-해체주의 패션을 통해 현 시대 가치를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제어 : 해체주의, 신-해체주의, 베트멍, 마르케스 알메이다, 자크뫼스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BK21플러스 의류패션 전문 창조 인재 양성 사업팀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교신저자: 하지수, Jisoocha@snu.ac.kr

접수일: 2016년 8월 29일, 수정논문접수일: 2016년 9월 12일, 게재확정일: 2016년 9월 27일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패션을 진화시키고 유행을 선도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는 패션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며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기기가 보편화되고 이로써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자 과거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정보의 흐름은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패션의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 리더의 주체에도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 최근의 변화들은 패션 리더의 범위를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패션 산업에서 점차 소비자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인 월터 바조트(Walter Baghot)가 ‘눈앞에 있는 것을 모방하려는 것은 인성의 본능이며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라고 말했듯이 소비자는 패션 리더를 모방하고자 하는 본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모방의 대상물을 창조하는 것은 여전히 생산자이다(Joo & Ha, 2016).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은 패션 혁신의 근간이기는 하나, 그것을 실제의 한 형태로서 창조하고 완성하며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는 것은 디자이너이며 이들이 곧 패션 리더의 주체로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사회 문화적 흐름과 소비자의 욕구 그리고 새로운 패션의 표현적 특성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주목을 받고 있는 디자이너들에 대한 이해는 필수 불가결하다.

『Fashionbiz』에 따르면, 해체주의 브랜드 벤테밍(Vetements)의 설립자인 뎀나 즈바살리아(Demna Gvasalia)가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발렌시아가(Balenciaga)의 수석 디자이너로 전격 영입되고, 마르케스 알메이다(Marques ' Almeida), 자크뫼스

(Jacquemus) 등의 해체주의적 성향의 브랜드들이 국경을 넘어 전세계의 젊은이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Lee, 2015a). 신-해체주의 디자이너들이 처음 패션계에 등장했을 때만해도 패션계는 80, 90년대의 해체주의 패션과 유사한 외형적 표현 특성으로 인해 90년대의 전위주의를 떠오르게 하는 디자인,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던 20세기 말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의 대한 그리움을 건드린 패션이라고 평가 했다(Shin, 2015). 하지만 시즌이 되풀이되고, 그들의 대한 열띤 공감은 전세계적으로 확대될수록 그들은 이 시대의 사회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해체주의 디자이너로 평가 받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이 패션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클래식시즘(classicism)과 모더니즘(modernism) 그리고 아방가르드(avant-garde)와 노스탤지어(nostalgia)의 융합으로 인해 과거의 것을 이용한 디자인들이 많이 등장하였고 동일한 양식과 표현 특성을 지닌 디자인들의 재현은 계속되고 있다(Kim, as cited in Na & Chun, 2000).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요소의 도입은 역사에 대한 충실한 재현이 아닌 시대의 흐름인 트렌드를 반영하고 디자인의 감성을 복합적으로 접목하고 재해석하여 패션을 계속하여 새로운 것으로 탄생되도록 한다(Na & Chun, 2000). Gill(1998)에 따르면 패션은 동시대 문화의 반영이자 동시대의 정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즉, 두 시대 해체주의 패션의 동일한 표현 안에는 상이한 내재적 정신과 사회·문화적 상징성이 발현되므로 해체주의와 신-해체주의의 미적 가치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그 시대를 기반으로 디자이너가 표출하는 시대의 미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계의 새로운 지변을 만들고 있는 신-해체주의 디자이너에 주목하여, 신-해체주의 패션디자인의 사회·문화적 발생 배경을 고찰하고 신-해체주의 디자인이 담고 있는 미적 가

치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Tucker and Kingswell (2003)에 따르면 패션은 근본적으로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담은 형식이며 시간적 은유를 통하여 문화를 재구성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예술이다. 따라서 각 해체주의 패션의 발생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해체주의 및 신-해체주의 패션이 담고자 하는 각 시대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욕망을 디자인하라」에 따르면, 혁신은 공감을 통해 완성된다(Chung, 2013). 이런 면에 있어서 단편적인 유행이 아닌 한 시대의 감성과 문화적인 공감을 얻어내고 있는 신-해체주의 디자이너에 대한 연구는 현대 패션의 새로운 혁신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세계의 디자인 변화에 대한 부정적 및 국내의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의 패션 산업에게 디자인에 대한 신선한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다 새로운 상품 기획 및 디자인 작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해체주의와 20세기 말에 등장한 해체주의를 구분하고자 21세기의 해체주의를 신-해체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조작적 정의하였다. 연구 방법은 첫째, 선행 연구를 통하여 20세기 말 해체주의 패션의 발생 배경을 도출하고 해체주의 패션의 개념 및 표현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신-해체주의 패션의 발생 배경을 밝히고 신-해체주의 패션의 개념 및 주요 표현 특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20세기 말의 해체주의와 신-해체주의 패션의 공통된 표현 특성을 기반으로 20세기 말과 21세기 해체주의가 내포하고자 하는 의미의 변화를 도출하여 미적 가치를 비교·분석하였다. 여기에서 표현 특성은 복식의 가시적 형태를 만들어내는 조형 요소를 위한 표현 기법 내지 표현 방법을 의미한다. 미적 가치는 문

화적, 사회적 환경,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 안에 담고 있는 디자이너의 미적 가치 및 미적 의식을 의미한다.

20세기 해체주의의 연구 범위는 80, 90년대 해체주의 디자이너들인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으로 한정한다. 21세기 신-해체주의의 연구 범위는 LVMH(Louis Vuitton Moët Hennessy) Prize 2015의 최종 8개에 선정된 브랜드 중 신-해체주의의 새로운 기수로 지명된 3개의 디자이너 브랜드인 마르케스 알메이다, 자크뤼스, 베트명으로 한정한다. 시기적 범위는 마르케스 알메이다와 자크뤼스의 컬렉션이 보그닷컴(www.vogue.com)에 실리기 시작한 2014년 S/S시즌부터 2016년 F/W시즌까지, 그리고 베트명의 경우는 브랜드의 데뷔 시점인 2014년 F/W부터 2016년 F/W 시즌까지로 한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패션 전문 사이트 및 문헌 고찰을 통한 이론적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를 위하여 해체주의 패션에 대한 선행 연구 및 패션 전문 정보지, 매거진, 학술지, 시사지, 신문, 패션 정보 사이트 등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본 자료들을 통해 해체주의 패션 및 신-해체주의 패션 개념과 등장 배경 및 표현 특성 등을 도출하였다.

Kim(1998)의 연구에 따르면 미적 가치는 인체와 복식 그리고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성립된다. 그러므로 미적 가치를 연구하는데 있어 실제로 디자인을 창조한 디자이너의 생각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디자인에 담겨 있는 미적 가치를 해석했기에 그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러한 한계점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하여 두 시대의 해체주의 디자인의 미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패션 전문 매거진, 신문, 사이트, 디자이너 관련 저서 등에 실린 디자이너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사용하였다.

실증적 사례 연구를 위해서는 선행 연구의 해체주의 패션 사진 및 보그닷컴의 컬렉션 사진, 각 브랜드 및 사이트의 홍보 사진을 활용하였다. 보그닷컴을 채택한 이유로는 100만개 이상의 컬렉션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일닷컴(www.style.com)과의 합병으로 가장 대표적인 런웨이 자료를 게시하고 있는 사이트로서 가장 방대한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이다(Dee, 2015). 또한 세 브랜드는 모두 전통적인 오프라인 홍보보다는 온라인을 주요 홍보 매체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 및 SNS 상의 홍보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적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해체주의와 신-해체주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표현 특성에 따른 사례들을 선정하여 현대와 과거의 해체주의가 가지고 있는 미적 가치를 비교·분석하였다.

II. 해체주의 발생 배경 및 표현 특성

60년대에 최초로 도입되어 미술, 건축, 연극, 음악, 무용 등 문화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해체주의 철학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에 들어서며 패션에서도 그 영향력이 가시화되었다. 해체주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도된 이탈적 현상들은 해체주의 철학과 포스트모더니즘적 정신과 결합되어 90년대 패션의 변화를 주도하였다. 신-해체주의에 대한 분석에 앞서 20세기 말에 성행한 해체주의에 대해 연구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20세기 말 해체주의의 발생 배경을 고찰하고, 해체주의의 개념과 표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해체주의 발생 배경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의 해체주의 패션의 사회·문화적 발생 배경을 살펴본 결과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사고 전환, 경제적 불안감 및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 증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1) 20세기 말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사고 전환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실용성과 기능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은 20세기 초부터 문화 예술 전반을 지배하였다. 이러한 모더니즘은 외관의 미보다는 실용성과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기능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남기는 절제된 미니멀리즘적 특성을 보여주게 된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르자 대중들은 기능만을 강조한 모더니즘 디자인이 갖는 획일성 및 몰개성에 대해 회의감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는 형태와 기능을 별개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왜곡되고 과장된 표현을 강조하는 해체주의가 등장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다(Park, S. J., 2015).

또한 90년대에는 급속한 산업 발전에 따른 물질 문명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감성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대한 강조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정신성에 대한 강조는 그 당시 해체주의 디자이너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카와쿠보는 “90년대는 정신적인 것에 대한 가치 부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마르지엘라는 80년대와 90년대의 차이에 대해 “80년대 패션은 90년대의 패션에 반대된 어떠한 ‘룩’을 보여주고 있는데 90년대는 어떤 ‘정신성’을 보여준다”고 말한바 있다(Bramton, as cited in Kim, 1994, p. 495). 이처럼 해체주의는 과감하고 외형적인 조형미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디자이너의 정신적인 철학을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점차 완성되어 갔다.

2) 경제적 불안감 및 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

20세기 말에는 새로운 세기에 일어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했던 시기이다. 1979년에 발생한 2차 오일 쇼크로 인해 석유 가격은 80년대 초에 사상 최고가로 치솟으며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미·소 양국 중심의 냉전 체제는 종식되었지만 오히려 세계 경제 자유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불안과 혼란은 계속되었다(oil shock, n.d.). 또한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지구온난화, 엘니뇨 등의 기상이변 발생은 대중들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은 패션에도 투영되어 에콜로지 룩, 슬로 패션 출현, 중고품 상점의 확장 등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쳤다(Compilation Committee of 100 years of Modern Fashion, 2002)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해체주의에도 반영되었다. 리처드 마틴(Richard Martin)과 헤럴드 코다(Herold Koda)가 ‘인프라 어패럴(Infra-Apparel)’ 전시회 도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체주의는 80년대말부터 지속된 경제 불황의 충격이 전통적인 미적 기호의 수용을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경제적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일환으로서의 역설적인 시도와 스타일의 대두가 그 배경이 되었다(Martin & Koda, as cited in Kim, 1994). 또한 빌 커닝햄(Bill Cunningham)은 버려진 패브릭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재활용 패션과 같은 해체주의 표현 방식이 날로 심화되는 환경 오염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Cunningham, as cited in Gill, 1998). 이와 같이, 해체주의는 합리성과 이성주의가 만연한 모더니즘의 반작용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 패션에 도입되고, 경제 불안과 환경 오염을 야기하는 기존 가치와 규범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배경 속에서 해체주의 패션이 크게 성장하였다.

2. 해체주의 패션의 개념 및 표현 특성

해체주의 개념은 1966년 미국의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대학에서 열린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Human Science」 발표에서 최초로 제시되었다(Kim, 2008). 이것은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포스트 구조주의 사상의 하부 개념으로서, 플라톤 이래 절대적 진리와 객관적 지식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로 인하여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서구의 형이상학과 경직되고 고정화된 이성주의에 대한 반기라 할 수 있다(Keum, 2005). 또한 모더니즘의 감수성과는 전혀 다른 탈모더니즘으로서 비주류와 타자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주장이었다(Lah, 2003).

해체주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패션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다. 패션에서 해체주의라는 용어는 1989년 『Details』에서 커닝햄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패션에 있어서의 해체주의는 종래의 가치관과 전통에 위배되는 전위의 방법이나 소재의 다양화, 과도한 노출, 전통적 패션 형태의 파괴 등으로 나타나며 하나의 스타일이 주도하기 보다는 다양한 요소가 공존하는 형태이다(Jang & Lee, 2006). 즉 해체주의 패션은 문자 그대로 봉제선이 떨어져 나가고 소매가 분리될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데리다가 주장한 바와 같이 기존의 모든 고정 관념을 거부하고 의복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다시 상상되고 실험되는 것을 말한다(Kim, 1994).

80년대에서 90년대로 이어지는 해체주의 디자인의 혁신적 디자인에 대한 관심으로 해체주의 패션에 대한 다수의 선행 연구들도 이루어져왔다. Kim et al.(1999)의 연구 등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논문들이 해체주의의 근간인 데리다의 해체이론을 패션에 적용하여 각 표현 특성들을

Table 1.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해체주의 패션의 표현 특성과 미적 가치.

표현 특성 \ 논저	Son (1993)	Kim (1995)	Kyung (1996)	Cho (1996)	Kim and Chun (1997)	Kim (1997)	Keum (2005)	Jang and Lee (2006)	Lah (2003)	Kwon (2007)
시·공간의 재조합	차연	텍스트성	텍스트성 탈현상	-	차연	차연	-	차연	텍스트성	탈중심성 텍스트성
성 경계의 해체	텍스트성	텍스트성	텍스트성	텍스트성	텍스트성	텍스트성	-	텍스트성	텍스트성	탈중심성
하위문화의 재조합	-	-	-	-	-	-	탈중심성	차연	-	탈중심성
비확정적인 착장 방식	-	불확정성 탈현상	불확정성	불확정성	불확정성	-	불확정성 탈중심성	불확정성	탈현상	불확정성
복식 구조 및 디자인 원리 해체	-	탈현상	탈현상	불확정성 탈현상	탈현상	탈현상	-	탈현상	탈현상	불확정성
속옷의 겹옷화	-	텍스트성	탈현상	-	텍스트성	-	텍스트성	텍스트성	노출	텍스트성
비침 소재	텍스트성	-	-	-	텍스트성	-	-	-	노출	-
구멍 내기	텍스트성	-	-	텍스트성 탈현상	-	탈현상	-	-	-	탈중심성
중고 스타일	-	-	-	-	-	차연	-	-	탈현상	-
재활용 의상	-	-	-	-	-	차연	-	-	탈현상	-
자연주의	불확정성	-	텍스트성	-	-	-	-	-	탈현상	-
탈 TPO	-	텍스트성	-	텍스트성	텍스트성 탈현상	-	-	텍스트성	-	텍스트성
부조화 코디네이션	-	텍스트성	텍스트성	-	텍스트성	텍스트성	-	텍스트성	-	텍스트성
	-	-	탈현상	-	탈현상	-	-	-	-	-

Adapted from Kim et al. (1999), p. 85.

해체주의적 미적 가치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테리다의 해체주의 개념이 해체주의 패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정리한 표는 <Table 1>과 같다. 선행 연구 분석 결과 테리다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해체주의의 표현 특성에 따른 미적 가치는 ‘차연’, ‘상호 텍스트성’, ‘탈중심성’, ‘불확정성’, ‘Dis, De의 탈현상’의 5가지로 정리되었다.

해체주의 패션의 미적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연(差延: difference)’은 우리말로 ‘차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인 ‘difference’와 ‘연기하다, 지연하다’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differer’를 합성해서 만든 신조어이다(Jang & Lee, 2006). 즉, 차연은 공간적 개념인 차이의 의미와 시간적 개념인 지연의 의미를 함께 내포하는 것으로서 차연의 개념을 통해 불변에 대한 항구적 의미는 제거된다(Kim & Lim, 1998). 패션에서 대표적인 차연의 표현 특성은 시·공간을 초월한 양식들의 재조합이다. 이러한 차연은 과거에 대한 향수뿐만 아니라 과거에 만들어진 그리고 시도된 것들을 조합하여 전혀 새롭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해체적 작업이다(Kim et al., 1999). 둘째, 패션에서의 ‘상호 텍스트성’은 기존 사회규범으로서의 이분법적 표현 방법을 무너뜨리고 이

성적이고 합리적인 면보다는 다양성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특성으로 한다(Jang & Lee, 2006). 특히, 전통적인 경계가 뚜렷한 남녀의 성 경계 혹은 T.P.O에 적합한 착장 방법을 해체시켜 이분법적 관념을 무너뜨리는 방식의 표현 특성으로 디자인된다. 셋째, ‘탈중심성’은 서구의 전통적인 근원이나 권위를 의미하는 로고스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Kwon, 2007). 이는 중심에 있는 것들을 해체시켜 내적으로 억압되고 소외되어왔던 비주류 문화와 하위문화의 재조합을 이용하여 의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넷째 ‘불확정성’은 텍스트의 불안정성과 비확정성을 근거로 모든 체계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고 말한 데리다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개념이다(Kim, 1995). 대표적인 불확정적 의복의 표현 특성은 일본 전통 복식의 착장법을 근간으로 두고 있다. 두르기, 매기, 묶기 등의 복식의 착용으로 완결되는 잠재적인 형태, 열린 비확정적인 착장 방식이 ‘불확정성’에서 표현 특성이 된다(Kim et al., 1999). 마지막으로 ‘Dis, De의 탈현상’은 일상적 현상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으로(Lah, 2003) 그 형태로는 왜곡과 과장을 통한 기존 복식 구조 및 구성 방식의 탈피 혹은 구성선에서 떨어져 나가 조형 원리를 벗어난 재조합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듦으로써 복식의 기존 개념을 해체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즉 일정 규칙이나 틀의 지배를 받지 않는 복식 구조 파괴 및 무질서한 디자인 원리 형태의 표현 특성을 제시한다.

<Table 1>에서 보면 연구자들에 따라 표현 특성에 따른 미적 가치가 다르게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Kim and Lee(2006)는 해체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들은 각각의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분석한 해체주의의 미적 가치는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본 연구자는 신-해체주의 비교·분석을 위해 자주 언급되는 빈도에 따라 해체주의의 미적 가치 중 대표

적인 5가지 미적 가치를 ‘시·공간의 재조합’과 ‘차연’, ‘성 경계의 해체’와 ‘상호 텍스트성’, ‘하위문화의 재조합’과 ‘탈중심성’, ‘비확정적인 착장 방식’과 ‘불확정성’, ‘복식의 구조 및 디자인 원리를 해체’와 ‘Dis, De의 탈현상’으로 정리하여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III. 신-해체주의 발생 배경 및 정의

최근 해체주의와 유사한 표현 특성을 가지고 등장한 신-해체주의 패션의 발생 배경과 표현 특성을 고찰한다. 고찰은 패션 매거진, 정보지, 그리고 신-해체주의 패션 디자이너들의 인터뷰를 근거로 진행되었다.

1. 신-해체주의 발생 배경

해체주의에 이어 신-해체주의 패션이 다시금 대중의 공감과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는 배경으로는 다르지 않은 평범함을 추구하는 نرم코어(normcore) 패션에 대한 회의감, 디지털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다양성에 대한 관용의 증가 그리고 사회·문화적 불안감을 흥미와 재미로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 نرم코어로부터의 탈피

한 동안 우리는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심플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 ‘단순하게 사는 삶’ 등의 절제 그리고 디자인적 단순함을 강조한 문구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는 라이프스타일 뿐 아니라 패션 영역으로도 확장되어 최근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패션 트렌드인 نرم코어 트렌드가 생성되기도 하였다. نرم코어는 ‘보통의’, ‘정상적인’을 의미하는 ‘normal’과 ‘핵심의’, ‘절대적인’을 의미하는 ‘hardcore’의 합성어로서 평범하고

단순한 디자인에 자연스러운 멋을 추구하는 패션을 뜻한다(Nam, 2015). 즉, 뽀코어 패션은 심미성보다는 실용성을, 외향적 과장보다는 절제를, 변화의 신선함보다는 남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함을 추구하는 패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아이템들의 부각을 중시한다.

하지만 뽀코어 열풍의 지속에 식상함을 느낀 패션계는 뽀코어 패션은 변화와 심미적 외형이라는 패션의 원동력을 무시함으로써 패션 고유의 재치를 잃어버리게 한 트렌드라고 비판하기 시작하였다(“2015년 뽀코어 룩 [2015 normcore look]”, 2015). 2015년에 발표된 PFIN 리포트는 ‘도대체 언제부터 패션에서 실용성이 가장 중요한 디자인 가치가 되었나?’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패션계가 다시금 디자인이 주는 심미적 만족감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포스트-뽀코어 [Post-normcore]”, 2015). 신-해체주의 패션은 뽀코어의 어원과 정반대인 ‘비정상적인(abnormal)’과 ‘주변부의(marginal)’를 수용하는 패션 트렌드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신-해체주의가 뽀코어에 대한 반작용이자 뽀코어의 반대 개념을 포용하고 있는 트렌드로서 등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해체주의 패션은 뽀코어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패션계의 사고를 수용한 것이지만 뽀코어의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여 그것의 반대 급부인, ‘비정상적인 것’, ‘주변부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해체주의 패션 디자이너들은 대중들이 뽀코어 패션에서 원하는 편안함과 그 반대적 개념인 ‘비정상적’이며 ‘주변부’라는 두 상반된 개념에 대한 니즈가 모두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그들의 디자인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즉 “일상과의 관련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평범하지 않는 의류를 만들자”는 베트명의 말처럼(Nelson, 2015) 뽀코어에서 착안한 일상의 아이템을 바탕으로 뽀코어와 반대 이미지인 평범하지 않은 의류를 만들어 냄으로써 신-해체주의에 대한 대중의 관심

을 증폭시켰다.

2) 다양성에 대한 관용 증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전세계의 정보들이 빠르고 자유롭게 교류되고 있다. 특히 유스(youth)를 구성하는 Y세대와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세대로서 모바일의 성장과 함께 자라나 디지털 환경에 매우 익숙한 세대이다. 온라인 세상과의 접촉이 일상인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온라인 세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온-오프라인의 경계와 영역을 넘나들며 계속하여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수용하고 있다(Monitoring 2016FW, 2015). Anderson and Rainie(2009)에 따르면, 온라인 액세스가 보다 다양한 사회, 종교, 인종, 단체로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면서 문화적, 사회적, 지적 관용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소수 문화로 등한시 되던 문화들에 대한 수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흑인의 문화로 치부된 던 힙합은 패션, 예술 등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주요 문화 아이콘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패션 신문인 2015년도 패션 신문 『Mau』에 따르면 힙합 가수 카니에 웨스트(Kanye west)의 브랜드 Kanye west x Adidas originals 컬렉션은 샤넬을 제치고 조화수 1위를 기록하는 등 패션계에서도 대중들은 힙합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Mau, 2015). 또한, 영국에서 복지예산을 축내는 하층 계급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차브(chav)족은 영화 『Kingsman』의 주인공 에거시(Eggsy)의 스타일이 큰 화제가 되며 영국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Ha, 2015). 자신만의 고유한 패션, 음악, 문화를 쫓는 소수의 부류를 의미하는 힙스터(hipster)는 다양성에 대한 포용과 개인 고유의 취향에 대한 인정이 이해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소수가 아닌 다수의 공감을 얻어내고 있으며, 시장을 재편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다(Lee, 2016).

특히 더욱 주목할 만한 관용은 젠더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다. 그 예로, 거대 장난감 제품업체 토이저러스(Toys R Us)는 젠더를 구분하는 온라인 필터를 삭제하기로 하였으며(Mesure, 2015), 영국 백화점 셀프리지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없앤 ‘아젠더(Agender)’란 컨셉 스토어를 만들어 이슈를 모으기도 했다. 대표적 SNS인 페이스북(Facebook)은 기존 58개의 젠더 옵션이 충분하지 않다는 성소수자들의 항의를 반영하여 2016년부터는 가입자 스스로 자신의 젠더에 대하여 정의할 수 있는 빈칸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Goldman, 2014). 이와 같은 관용의 증대는 과거의 전형을 타파하고, 주변부의 것들을 포용하여 모든 것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디자인하려는 신-해체주의 패션이 각광받게 한 배경 중 하나이다.

3) 불안감을 흥미로 전환

현대는 끊임없는 자연재해, 메르스(MERS) 등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 계속되는 경제 불황, 과학 기술의 오용, 프라이버시 감시에 대한 불안, 테러 등 해체주의가 성행하였던 20세기 말보다 크게 확대된 충격과 불안이 일상화되고 있다.

불안한 일상과 현실은 전통적인 가치와 성공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느껴지도록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 ‘연애’, ‘출산’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들을 포기하는 세대라는 의미의 ‘N포세대’란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N포세대 [‘N-po’generation], n.d.).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 따르면 과거 열정과 도전정신을 의미하던 청년의 이미지는 이제 취업난, 스펙 경쟁, N포세대, 열정페이 등 부정적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Im & Jeon,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실감에 좌절하거나 잠식되기보다는 순간과 일상의 즐거움을 발견하여 현실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대인들은 휴대

용 전자기기를 통해 현실의 불안감을 무겁고 진지하게 사고하기보다는 순간적이고 신속한 즐거움을 통해 탈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Park et al., 2016). 이와 같이 순간적 흥미에 대한 관심 증대는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고자 하는 신-해체주의의 확대 배경 중 하나이다.

2. 신-해체주의 개념 및 표현 특성

패션계는 실제 판매로 연결되지 않으면 채택되거나 제작될 수조차 없는 시장 경쟁 상황 속에서 ‘쿠티르의 실종’, ‘웨어러블한 옷의 홍수’, ‘재미를 잃은 런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Kim, 2015).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고정관념과 전통적인 구분을 따르지 않고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신-해체주의 패션이 등장하여 국경을 초월한 젊은 세대들의 공감을 얻고 있으며 전 세계 패션 트렌드를 이끄는 하나의 축이 되고 있다. 저명한 패션 잡지 『VOGUE』는 신-해체주의를 성별 구분이 모호하고 다분히 해체적이며 형태가 불분명한 옷이라고 칭하고 있다(Shin, 2015). 또한 패션 전문 사이트 PFIN에 따르면 신-해체주의 패션이란 해체하거나 재조합해서 어딘가 어색하고 생경한 매력의 옷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Monitoring 2016FW, 2015), (트렌드인코리아(Trendinkorea)와 (주)시스파트너스(Ceres Partners)가 개최한 비즈니스 전략 세미나에서는 신-해체주의를 경계 없는 새로운 질서를 역으로 재조합한 패션 트렌드라고 정의하고 있다(Bell et al., 2016). 또한 신-해체주의는 미국의 유명 패션 저널리스트인 사라 모어(Sarah Mower)의 “패션계는 런웨이와 레드 카펫보다 거리 위의 모습이 우선이다. 캐주얼하고 현실적인 것이야말로 새로운 기준이다”라는 말과 같이 일상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Lee, 2015a).

이를 보여 주듯 베트멍의 디자이너 즈바살리아는 『W』 잡지 인터뷰 중에 “우리는 평소 열광하는

베이직 아이템을 규정하는 일부부터 시작했어요”라고 신-해체주의 디자인의 시작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자크뫼스는 “나의 뮤즈는 거리의 여성들이다”라고 말했다(Nelson, 2015). 이처럼 실제로 현실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소비되는 패션의 ‘일상성’은 신-해체주의를 정의하는데 빠질 수 없는 개념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해체주의 패션의 개념은 우리가 현재 항상 착용하는 일상적인 아이템을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해체하고 재조합하여 평범하지 않은 생경한 아름다움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신-해체주의 패션이 패션계에 처음 등장한 2014년에는 많은 패션 전문가들조차 그것은 90년대 해체주의의 재연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실제로 패션 잡지인 『W KOREA』는 신-해체주의가 디자이너 ‘마르지엘라’에게 바치는 헌사와 같은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으며(Lee, 2016), 『VOGUE』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잃을지 모르는 상표 즉 마르지엘라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디자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Shin, 2015). 이처럼 90년대 해체주의의 재연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은 이유는 신-해체주의의 표현 특성이 해체주의의 표현 특성과 많은 유사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사성들은 해체주의 패션을 묘사한 다양한 잡지 기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제적인 패션 매거진들은 과거의 해체주의 패션에 대해 ‘미완성의’, ‘해체된’, ‘재활용된’, 혹은 ‘그런지’라고 묘사하고 있다. 또한 『VOGUE PARIS』는 해체주의 패션을 ‘La Mode Destroy’라 칭하며, 기능성 및 전통적인 패션 관례를 무시한 안티 패션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Gill, 1998). 신-해체주의의 표현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현대의 잡지들도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신-해체주의 패션의 대표 브랜드인 베트멍에 대해 『W KOREA』는 ‘해체와 재조합을 근간으로 하는 변주법’(Lee,

2015b), 『Fashionbiz』는 ‘럭셔리와 서브 컬처 사이에 놓인 벽을 깨뜨리고 뒤섞어 놓는 스타일’(Lee, Y. J., 2015), 『VOGUE KOREA』는 ‘망치로 규격화된 복식을 망가뜨린 형태이자 젠더리스(genderless) 패션을 표방한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다(Shin, 2015). 마르케스 알메이다의 디자인에 대해 『ELLE』는 ‘미완성 기법의 너털너털한 데님을 통한 그런지하고 거친 미학의 철학을 담은 스타일’(Yu, 2015a), 『VOGUE』는 ‘그런지룩의 예술적 귀환이자 90년대의 정화’라고 설명하고 있다(Menkes, 2015). 마지막으로 자크뫼스의 패션에 대해서 『W KOREA』는 ‘아이의 이미지 같은 패치워크의 작업의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다(Park, Y. G., 2015). 위의 내용과 보그 에디터들의 신-해체주의의 표현 특성을 정리하면, ‘시·공간의 재조합’, ‘성 경계의 해체’, ‘하위문화의 재조합’, ‘비확정적인 착장 방식’, ‘복식 구조 및 디자인 원리의 해체’로 정리된다. 이것은 20세기말 해체주의의 표현 특성과 공통된다.

IV. 신-해체주의 미적 특성

20세기 해체주의와 신-해체주의 동일한 표현 특성에 대한 각 해체주의가 담고 있는 미적 가치를 비교·분석 하였다.

1. 시·공간의 재조합: 집단화된 코드 VS 이질적 코드

해체주의나 신-해체주의 모두 시대적 흐름인 트렌드와 디자이너의 감성 그리고 과거의 역사나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접목하고 시·공간을 재조합하는 표현 특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들이 나타내고자 한 디자인의 미적 가치에는 차이가 있다. 해체주의 디자이너들이 집단화된 코드를 바탕으로

공감을 이끌어내거나 이상화된 과거의 장소나 시대의 양식을 차용하여 시·공간의 관계성을 조합한 익숙한 낯설음을 만들고자 의도했다면, 신-해체주의 디자이너들은 독특한 경험인 이질적 코드를 표현함으로써 본질적인 신선함을 통한 자신들만의 디자인 개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20세기 말 해체주의의 시·공간 재조합의 표현 특성에는 과거의 시간에 느꼈던 감정이나 기억을 떠올리고 그리운 감정을 갖는 노스탤지어를 이용하고 있다. 즉, 해체주의는 노스탤지어란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거의 스타일을 모방하고 그 형식을 빌려와 현재 시대에 맞게 재조합하여 새롭게 읽으면서도 낯선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형성시키고 있다. Kwon(2015)의 연구의 따르면, 이러한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감정적 공감대를 생성할 수 있는 집단화된 코드가 필요하다. 하지만 집단화된 코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믿을 만한 참고자료가 있다면 직접적 경험과 비슷한 감정적 경험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갈수록 회복할 수 없었던 거리의 극복이나, 광대한 자료를 통한 과거와의 차이 감소로 인하여 간접적 경험을 통한 심리적 공감 유도의 시도는 더욱 확대되었다(Kwon, 2015). 고티에는 자신의 패션은 내가 알고 있는 세계 밖에 다른 세계의 존재하는 강하고 독특한 캐릭터를 투영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McDowell, 2001). 즉, 해체주의의 시·공간 재조합의 방식에는 그들이 직접 경험한 과거에 대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그들이 시대 및 공간을 넘어선 직접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대한 집단화된 코드인 노스탤지어의 요소들과 현 시점들을 재조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예를 들면, <Figure 1>과 같이 빅토리안(Victorian) 시대의 패션 요소와 미니멀리즘을 혼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한 마르지엘라의 디자인이나 <Figure 2>에서 보듯 일본의

기모노에서 영감을 얻은 고티에의 디자인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신-해체주의 브랜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노스탤지어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마르케스 알메이다의 디자이너들의 『VOGUE』 잡지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다. 그들은 “향수(nostalgia)를 자극하려는 건 아니에요. 전 향수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희한할 수도 있어요”라고 말하며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Menkes, 2015).

더욱이 신-해체주의 패션은 대중이 공유하지 못한 혼란스러웠던 90년대의 동유럽과 러시아의 분위기, 혹은 90년대 미국의 문화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은 유럽의 소도시에서의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신-해체주의의 대표적 패션 브랜드인 베트밍의 디자이너 즈바살리아는 동유럽 조지아(Georgia) 출신으로 소비에트 키즈라고 불리는 ‘포스트 페레스트로이카(post perestroika)세대’이다. 그래서 그는 구소련 공산권 붕괴 직후의 빈곤함과 미국과의 문화 개방으로 흘러 들어온 서양 문물의 충동에 관한 기억을 토대로 ‘생경한 동구권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디자이너로 주목 받고 있다(Son, 2015).

또한, 마르케스 알메이다의 두 디자이너인 마르타 마르케스(Marta Marques)와 파울로 알메이다(Paulo Almeida)는 각각 포르투갈의 공업도시 포르토(Porto)와 농업지역 비세우(Viscu)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두 디자이너는 『VOGUE』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90년대는 잡지를 통해 걸러진 문물을 접하는 것이 전부인 작은 도시였다고 설명하고 있다(Menkes, 2015). 이 인터뷰 내용에서 보듯이 두 신-해체주의 패션 브랜드 디자이너들 모두 대중의 공감을 일으키는 집단적 코드가 아닌 자신들만의 이질적 코드인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그들의 패션디자인을 완성해왔다. 그리하여



Figure 1. 1993 S/S
마틴 마르지엘라.
From SPRING 1993
READY-TO-WEAR Maison
Margiela. (1992).
<http://www.vogue.com>



Figure 2. 1993 S/S
장 폴 고티에.
From SPRING 1993
READY-TO-WEAR John Galiano.
(1992).
<http://www.vogue.com>



Figure 3. 2015 S/S
베트멍.
From SPRING 2015
READY-TO-WEAR Vetements.
(2014).
<http://www.vogue.com>



Figure 4. 2015 F/W
마르케스 알메이다.
From FALL 1993 READY-TO-WEAR
Marques 'Almeida. (2015).
<http://www.vogue.com>

<Figure 3>과 <Figure 4>와 같이 색다른 아이템의 조합과 소재의 조합을 통한 디자이너들만의 이질적인 90년대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신선한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20세기 해체주의 패션은 노스탤지어를 유발하는 집단적 코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표현 특성의 미적 가치는 노스탤지어의 개념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20세기 말 해체주의 패션의 시·공간을 초월한 표현 특성은 하나의 스타일 안에 여러 시대가 동시에 재현되어 오히려 현대적 방향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따라서 역사의 재현이 아닌 물역사성을 띠고 있다(Na & Chun, 2000). 즉 과거의 노스탤지어를 넘어선 과거-현재-미래의 연결고리를 통해 과거와 미래 사이의 관계인 산물일 경우에만 현전할 수 있다는 데리다의 ‘차연’의 개념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Kwon, 2007). 하지만 신-해체주의 패션은 디자이너가 직접 경험한 혼란의 90년대에 독특한 문화 즉 이질적 코드가 존재했던 고립된 소도시의 기억을 토대로 지금의 신-해체주의의 독특한 신선함을 표현하고 있다. 신-해체주의의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생경한 90년대의 기억은 대부분의 대중들에게 낯선 모습이며 20세기 말 해체주의와도 다르고, 레트로(retro) 패션

과도 다른 신선한 디자인으로 다가와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 성 경계의 해체: 양성의 경계 거부 vs 다양한 성의 수용

패션계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해체하기 위한 노력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시도되어 온 방식이다(Lee et al., 2011). 특히, 198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문화를 주도해온 남성중심의 이성주의적 담론을 해체하며 자연적 성으로부터 문화적 성으로 시선을 돌려 성의 단일한 대립구조 속에 집어넣는 태도를 거부하는 양성성을 추구하였다(Park, 2003). 이러한 상황을 두고 고티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사이의 경계는 매우 혼란스러운 정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McDowell, 2001).

해체주의 패션은 위와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맥락 속에서 남녀의 경계를 해체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세기 말 해체주의에서는 성의 복합적인 표현 방법 즉 남녀 성적 매력 포인트를 서로에게 교차하거나 혼합하여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나 중성적인 이미지인 유니섹스, 앤드로지너스 등 두 성적인 특징을 포함한 듀얼리즘



Figure 5. 1996 F/W
알렉산더 맥퀸.
From FALL 1996 READY-TO-WEAR
Alexander McQueen. (1996).
<http://www.vogue.com>



Figure 6. 1989년 비비안
웨스트우드.
From Jang and Lee. (2006).
p. 69.



Figure 7. 2016 S/S
베트멍.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Vetements.
(2015a).
<http://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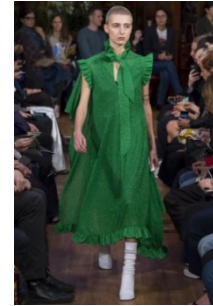


Figure 8. 2016 S/S
베트멍.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Vetements.
(2015b).
<http://www.vogue.com>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Jang & Lee, 2006). 그 예로, 맥퀸은 나는 여성이 남성보다 강한 이미지하기를 원하다 라고 말하며(Watt, 2012), <Figure 5>처럼 남성 슈트 스타일을 여성이 착용함으로써 여성에게 풍기는 강인함과 중성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웨스트우드는 <Figure 6>처럼 여성 팬티 위에 남성 성기를 표현함으로써 성의 혼재를 표현하려고 하였다.

21세기에 들어 성과 관련된 패션의 일반화된 규범보다는 개인적인 사고와 정서가 반영되어 다양한 성적 취향과 기호를 대담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이면에 감추어져 있었던 성적 취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상징화하는 시도 또한 활발해졌다. 이러한 시대 상황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 산-해체주의 패션은 남성과 여성의 대립적 경계의 해체를 넘어서서, 다양한 성적 취향과 다원적 표현성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Kwon, 2008). 즉,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적인 성별 인식 외에 다양한 성적 소수자들의 생각과 그들의 취향을 인정하여 각자의 성적 취향에 맞추어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을 수 있는 디자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멍, 마르케스 알메이다, 자크뮈스의

옷들은 남녀에 대한 구분 없이 누구나 쉽게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베트멍은 2016년 S/S 컬렉션에서 <Figure 7>에서 보듯이 남자같이 보이는 여자 모델에게 드레스를 입히고, <Figure 8>처럼 여성적이지만 실제로는 남자인 모델에게 비슷한 드레스를 착용시킴으로써 대중들에게 신체적 조건이 성적 매력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는 남녀 컬렉션을 통합함으로써 다양한 성적 성향을 수용하는 패션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Gush, 2016).

3. 하위문화의 재조합: 저항을 위한 추 vs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하는 추

해체주의 패션은 중심에 있는 것들을 해체시키고 내적으로 억압되고 소외되어왔던 비주류문화나 타자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기 위해, 비주류인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의 하위문화를 표현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해왔다. 또한 해체주의는 절대적 아름다움의 추구라는 중심적인 미의식과 사회적 계급의 표현으로서의 패션에서 벗어나 ‘추(醜)의 미’를 미의 개념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구겨지고, 흠집이 있고, 찢어지고, 더럽혀진

웃감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Keum, 2005). 즉 과거의 해체주의는 기존의 미의 근원이나 권력구조에 대한 반대를 특징으로 하는 반문화적인 성향이 강했다. 그 예로 카와쿠보는 『ELLE』와의 인터뷰 중 “나는 기존의 가치에 대항하고, 특정 그룹이나 운동에 속하기를 거부한다”라고 밝히며 기존의 권력 구조와 체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었다(Slowey & Hyzagi, 2016). 그리하여 카와쿠보는 기존의 미적 기준에서 벗어난 헝클어진 머리의 정돈되지 않은 험 라인(hem line), 낡은 듯한 옷차림으로 기존의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주의 미학’을 선보였다. 이런 카와쿠보의 패션을 두고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는 그녀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움의 기준에 대한 기존의 사고 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들을 가지게 한 디자이너라고 언급했다(Sanae, 2005). 또한 웨스트우드도 자신은 기존 어른들의 가치 체계를 거부하며 이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젊은 세대의 문화 중 하나인 그래픽이나 슬로건의 표현 방식을 옷에 적용하였다고 하였다(Fury, 2015). 이러한 그녀의 생각을 반영하여 펑크(punk)와 쿠티르(couture)를 조합한 ‘PUNKATURE’라는 컬렉션을 개최하여 스트리트 패션을 이용하여 하이패션의 권위에 반하는 스트리트 펑크 룩을 선보였다(Jang & Lee, 2006).

신-해체주의 디자이너들도 해체주의와 마찬가지로 베트명을 중심으로 다양한 클럽문화가 복합되어 있는 하위문화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여기서 클럽문화는 반항적이고 쾌락적이며, 사회와 가정의 통제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에 의해 표현되는 문화로서 이는 20세기 말 해체주의 패션에서 드러나는 반문화적 성향과 그 맥락을 함께 한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영국의 문화학자 사라 손튼(Sarah Thornton)은 클럽문화를 ‘청년 하위문화에 부여된 일상적인 표현으로서 댄스클럽과 그것의 파생물인 레이브가 상징적 축이자 사회활동의 중심이며, 사운드와 스타일을 끊임없이 제시

하고 변화시키는 특정 공간과 관련된 문화’로 규정하고 있다. 즉, 클럽문화는 반문화적일 뿐만 아니라 수용하는 세대에 따라 ‘가변적’이며, 음악과 미술, 춤, 패션과 같은 여러 영역의 예술 요소들을 포함하고, 다양한 문화적 특수성을 혼합한 ‘다문화적’인 문화이다(Han, 2007). 그러므로 이러한 가변적이고, 다문화적인 클럽문화는 개인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평범함을 벗어난 비주류를 추구하는 청년 문화를 집약해 놓은 것으로서, 패션 산업의 주요한 소비자인 청년의 니즈가 함축되어 있는 문화라 할 수 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옷을 기반으로 낯설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한 옷을 추구하는 신-해체주의 디자이너들에게 이와 같은 클럽문화의 활용은 당연한 선택이다. 이를 증명하듯 미완성 기법의 너털너털한 데님 컬렉션으로 스타덤에 오른 마르케스 알메는 그들이 일명 ‘찢창’ 즉 찢어진 데님을 택한 이유가 유스 컬처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Yu, 2015a). 또한 베트명은 언더그라운드 정신에 부르주아 취향을 뒤섞음으로써 소비자들의 열광적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Yu, 2015b). 이처럼 신-해체주의 디자이너들은 과거 해체주의 패션처럼 패션 시스템의 계층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의 개념을 넓히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빠른 니즈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하위문화의 재조합에서 찾는 것이다

베트명의 하위문화의 활용은 클럽문화 외에도 일명 90년대 이미테이션(imitation) 시장에서 봤음직한 패러디식 프린트를 활용한 카피 로고에서도 드러난다. 택배 회사 DHL로고를 그대로 사용한 티셔츠나 <Figure 9>와 <Figure 10>에서 보듯이 쉘피언 브랜드의 심벌을 풍자한 로고를 만들어 수십 달러에 팔고 있다. 이러한 카피 로고에 대한 대중의 인기는 <Figure 11>처럼 베트명을 또 다시 패러



Figure 9. 챔피언 후디.
From Champion Hoodie With
Script Logo. (n.d.).
<http://www.asos.com>



Figure 10. 베트멍 챔피언 후디.
From vetements_official.
(2016a).
<https://www.instagram.com>



Figure 11. 베트멍 레인코트.
From VETEMENTS. (n.d.).
<https://www.antonioleu>



Figure 12. 베트멍 레인코트.
From Friedman. (2016).
<http://www.nytimes.com>

디한 베트멍(Vetementes)의 브랜드를 만든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이 브랜드는 베트멍의 대표 상품 중 하나인 레인코트 <Figure 12>와 재질 및 디자인이 유사하지만 가격은 1/10밖에 되지 않는 59달러의 베트멍의 레인코트를 만들어 컬렉션 쇼 장 앞에 선보임으로써 베트멍 브랜드를 홍보하였다. 이러한 행보에 대해 베트멍은 소송 대신 “우리가 베트멍을 만드는 것만큼, 베트멍 디자이너도 자신의 프로젝트를 즐기길 바란다”라고 밝혔다(Nam, 2016). 이처럼 신-해체주의 브랜드들은 카피 문화를 포함한 하류 문화가 패션의 계급성에 대한 반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대중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누구나 착안 가능한 표현 특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4. 비확정적인 착장 방식: 완결된 형태의 거부 vs 개별적 개성의 수용

해체주의 패션은 기존 패션이 추구하던 몸의 형태에 맞춘 실루엣에서 벗어나 비확정적이며, 완결되지 않은 형태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아마모토는 “완벽함은 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으며(Lee, 2012) 카와쿠보는 “옷의 형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유롭게 디자인 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Sanae, 2005). 해체주의는 <Figure 13>과 같은 두르기, 매기, 묶기 등의 착장 방식을 이용하여 비확정적인 표현 특성을 보여주거나 일본 전통 복식의 착장법의 영향을 받아 <Figure 14>와 같이 직선적인 재단법을 이용한 2차원적인 소재를 가지고 3차원의 입체에 착용됨으로써 완결되는 잠재적인 형태를 추구한다. 의복의 형태에 의해 외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의복 사이의 공간 개념을 취하여 새로운 형을 만들 수 있도록 비구축적인 형태로서 열린 공간의 불확정성으로 완결된다(Han, 2004). 또한 무한히 개방된 공간 구성과 인체의 자유로운 활동에 따라 생기는 유연성을 지향한다. 즉, 의복형 자체를 부정하여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생성되는 새로운 라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Kim, 1998). 다시 말해, 20세기 말 해체주의 패션은 패션의 형태는 인체 위에 착용된 후의 논의가 가능한 비확정적인 것이며, 착용 후의 형태 또한 인간의 행동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 가능함으로 완결의 형태를 거부한 미완결의 불확정성을 미적 가치로 표현하려고 하였다.

신-해체주의 패션들은 해체주의와 유사한 착장 방식인 비확정적인 표현 특성을 보여주고는 있



Figure 13. 1983 레이 카와쿠보.
From Comme des Garçons dress
designed by Rei Kawakubo.
(1983).
<http://www.whatgrandmawore.com>



Figure 14. 오지 야마모토, 1981 F/W.
From Yohji Yamamoto,
Fall/Winter 1981. (n.d.).
<https://kr.pinterest.com>



Figure 15. 2016 S/S 베트멍.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Vetements.
(2015c).
<http://www.vogue.com>



Figure 16. 베트멍.
From Re-Edition Magazine
Marland Backus by Mark
Borthwick. (2016).
<https://models.com>

나, 그걸 통해 담고자 하는 미적 가치는 과거 해체주의와는 다르다. 신-해체주의 의복은 소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의복으로 변형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DIY는 현대에 와서 ‘손수, 직접 만드는 개념’에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상품을 창조’하는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DIY 제품들은 집단의 유행보다는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독특하고 개성적인 표현을 요구하는 청소년의 문화와 다양성을 포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인식 확대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Chae, 2008). 신-해체주의 디자이너들은 소비자들의 DIY를 통한 개별적 개성 표현의 니즈를 인식하고 이러한 경향을 패션디자인에 반영하고 있다. 그 예로 <Figure 15>와 <Figure 16>을 비교해 보면 소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의복으로 변형되어 자신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부여하는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자크뤼스는 『W KOREA』와의 인터뷰 중 “패션은 그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이다. 자신의 옷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무언가가 담겨야 한다. 즉, 패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Park, Y. G., 2015), 베트멍 디자이너 즈바살리아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나의 개성은 물론 삶의 태도까지 표현되는 시대가 됐다”고

언급했다(Song, 2016). 이처럼 신-해체주의 디자이너들은 패션은 입는 사람 즉 소비자 자신만의 기호와 취향을 표현해야 완성되는 형태이므로 착용 방식에 있어서도 보다 개별적인 선택의 자유가 포함된 DIY형식의 착장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해체주의의 미완성 착장 방식은 완결된 형태의 거부와 자유로운 선의 열린 상태를 통한 불확정성을 미적 가치로 두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개별적인 개성 표현 욕구에 대응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는 것을 미적 가치로 두고 있다.

5. 복식의 구조 및 디자인 원리 해체: 전통적 이상미 거부 vs 재미와 유희미 포용

해체주의 패션은 형태에 대한 왜곡과 과장의 방식, 무질서한 디자인 원리를 제시하여 기존 복식 구조의 구성 방식에서 탈피함으로써 전통적 복식의 이상미를 거부하고자 하였다. Park et al.(2015)의 연구의 따르면, 해체주의 패션은 모더니즘의 천편일률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무엇인가를 덧붙이고 벗겨내는 비합리적인 작업을 통한 재조합으로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아닌 새로운 미의 기준을 창출해 내었다. 또한 원래의



Figure 17. 1998 S/S 마틴 마르지엘라.
From Maison Martin Margiela.
(2013). p. 45.



Figure 18. 1997 요지 야마모토.
From Rei Kawakubo-Comme des
Garçons(1942). (n.d.).
<http://theredlis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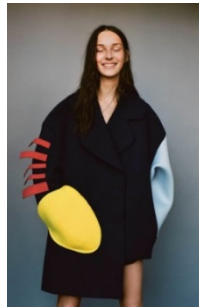


Figure 19. 2016 S/S 베트멍.
From Nylander. (2014).
<https://i-d.vic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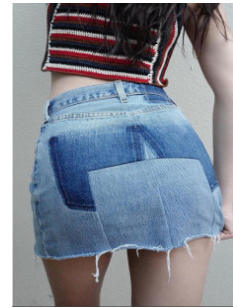


Figure 20. 베트멍.
From vetements_official.
(2016b).
<https://www.instagram.com>

전통적인 패션이 드러내고자 하는 비례, 균형, 리듬, 통일, 조형 원리에 따른 질서와 가치의 미인 조형미를 거부하여 이상적인 미적 기준을 파괴하고자 하였다. 야마모토는 “균형의 원리는 인간 몸을 구현하는 완전한 조건이 될 순 없다”라고 말하며 조형 원리의 무의미함을 드러내었다(Baudot, 1997). 또한 그는 “인간이 만든 물건 어딘가에서 무질서, 왜곡을 발견하고자 한다”라며 전통적 디자인 원리의 해체를 추구하는 그의 디자인 철학을 선보였다(Lee, 2012). 그 예로는 <Figure 17>과 같이 해체주의 패션디자인은 신체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신체보다 훨씬 큰 어깨의 재킷을 선보임으로써 의복의 사이즈 및 비율에 대한 전통적 관념의 해체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Figure 18>과 같이 옷을 구조적으로 분리 후 다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위치와 기능을 무시한 의복을 만듦으로써 서구 의복이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안정된 조화의 미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신-해체주의 의복에서도 사이즈의 변형, 혹은 복식의 구조나 디자인의 원리를 무시한 재조합의 표현 특성은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표현 특성에 대해서도 과거의 해체주의와 지금의 신-해체주의는 디자인의 시작점이 다르다. “과거의 해체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개념적인 패션을 창조하

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옷을 만든다”라는 베트멍 디자이너의 인터뷰 내용과 “아이들과 같은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것, 그리고 순간적인 것이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는 자크뤼스의 인터뷰 내용처럼 신-해체주의 패션은 대중의 니즈에 적합한 현실성과 순간의 우연성으로 완성되는 재미와 유희를 추구하는 것이다(Park, Y. G., 2015). 그 예로, <Figure 19>와 같이 자크뤼스는 어린이들의 동심의 마음으로 재조합한 재킷을 선보이거나 베트멍의 디자인인 <Figure 20>에서 보듯이 평범한 대상들을 친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배열하거나 재조합하여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을 통하여 순간적이며 신선한 경험과 재미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V. 결 론

최근 디지털의 발달로 인하여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자리잡아 감에 따라 소비자의 역할과 위상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디자인과 패션 트렌드의 방향성을 실질적인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역할의 리더는 패션

Table 2. 표현 특성을 기반으로 한 미적 가치 비교.

해체주의 미적 가치	표현 특성	신-해체주의 미적 가치
집단화된 코드를 바탕으로 한 대중의 공감 - 차연	시·공간의 재조합	이질적인 코드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의 신선함
양성의 경계의 거부 - 상호 텍스트성	성 경계의 해체	다양한 성의 수용
저항을 위한 추 - 탈중심성	하위문화의 재조합	니즈에 대응하는 추
완결된 형태의 거부 - 불확정성	비확정적인 착장 방식	개별적 개성의 수용
전통적 이상미 거부 - Dis, De의 탈현상	복식 구조 및 디자인 원리 해체	재미와 유희의 미 포용

디자이너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혁신적인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에 집중하였다. 특히, 한 동안 잠잠하던 해체주의적 디자인이 또 다시 전세계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디자이너들 중 신-해체주의 디자이너들에게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14년 이후 다시 부각되고 있는 신-해체주의 디자이너의 등장 배경과 표현 특성을 밝혀내고, 20세기말에 성행하였던 해체주의 패션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신-해체주의만이 내포한 미적 가치를 연구하였다.

90년대 해체주의와 신-해체주의는 5가지의 매우 유사한 표현 특성인 ‘시·공간의 재조합’, ‘성 경계의 해체’, ‘하위문화의 재조합’, ‘비확정적인 착장 방식’, ‘복식 구조 및 디자인 원리 해체’를 공유한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미적 가치는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정리한 표는 <Table 2>와 같다.

이와 같이 20세기말의 해체주의는 대중의 수용 가능성과는 별도로 디자이너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표현 방식을 전위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그 표현을 대중들에게 강요하고자 했다. 하지만 신-해체주의 디자인은 대중이 실제로 거리에서 입고 즐기는 패션과 문화를 디자인의 시작점으로 두고, 동시대 대중들의 사고와 요구를 디자이너의 시각 및 경험에 결합하여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즉 일상적인 아이템을 바탕으로, 대중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위트있

고 신선한 패션디자이너가 현재의 신-해체주의 디자인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경제적 불확실성 및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대한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의 패션 산업계에게 있어, 신-해체주의가 새로운 혁신의 트렌드인 동시에 중요한 소비자로 떠오르고 있는 유스 문화의 반영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는 자료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패션업계의 향후 상품 기획 및 패션디자인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자료라 생각된다.

또한, 패션은 단순히 ‘입는다’는 기능성을 벗어나 과학이나 철학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회상을 표출하는 중요한 문화적 매체 역할을 하고 있다 (Kwon, 2008). 따라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가변성 및 유동성을 가진 시대적 미적 가치와 가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어서 패션은 큰 의미가 있는 그릇이다. 그러므로 사회·문화적 그리고 미적 가치를 담고 있는 신-해체주의 패션에 대한 이해는 어느 시기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 시대의 가치를 읽어낼 수 있는 유용한 기호이며 도구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신-해체주의 패션에 대한 이해는 좁게는 패션 산업과 소비 트렌드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방법이면서 넓게는 현 시대상을 이해하고 예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패션이 개인의 성향을 표현하는 조형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내재된 의미들을 발현 시키는 상징물로 인식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패션이 단지 소비되고 버려지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개인의 감정 및 시대적 사고와 문화를 표출하는 문화적 상징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수많은 패션 전문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신-해체주의의 미적 가치를 분석하는데 있어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신-해체주의 디자이너들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나 신-해체주의 표현 특성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에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References

- Anderson, Q. J., & Rainie, L. (2009). *The Future of the Internet: Ubiquity, mobility, security*. New York: Cambria Press.
- Baudot, F. (1997). *Yohji Yamamoto* (2005). New York : Assouline.
- Bell, D., Lee, D., & Lee, E. H. (2016, May 12). Business Seminar. *futuretrend.modoo*. Retrieved June 12, 2016, from <http://futuretrend.modoo.at>
- Chae, J. Y. (2008). *A study on the fashion styles and trend culture of y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Tongmyong University, Busan.
- Champion Hoodie With Script Logo. (n.d.). *asos*. Retrieved June 17, 2016, from <http://goo.gl/6Z9bkE>
- Cho, M. H. (1996).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deconstructionism in the modern costu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Chung, K. W. (2013). *욕망을 디자인하라* [Designing the desire]. Seoul: Chunggrim.
- Comme des Garçons dress designed by Rei Kawakubo. (1983). *what grandma wore*. Retrieved June 12, 2016, from <https://goo.gl/7aBCLv>
- Compilation Committee of 100 Years of Modern Fashion. (2002). *현대 패션 100년* [Fashion 1900-2000]. Seoul: Kyomunsa.
- Dee, B. (2015, August 7). Style.com Runway Coverage To Migrate To Vogue Runway. *FASHION TIMES*. Retrieved July 21, 2016, from <http://goo.gl/4kBcbX>
- FALL 1996 READY-TO-WEAR Alexander McQueen. (1996). *VOGUE*. Retrieved June 1, 2016, from <http://goo.gl/wQFptY>
- FALL 1993 READY-TO-WEAR Marques ' Almeida. (2015). *VOGUE*. Retrieved May 1, 2016, from <http://goo.gl/FPAFu2>
- Friedman, V. (2016, March 31). Vetements Won't Be Pouring Cold Water on Parody Raincoat.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June 15, 2016, from <https://goo.gl/lcl8ug>
- Fury, A. (2015, March 8). Vivienne Westwood interview: An audience (of sorts) with British fashion's grande Dame. *Independent*. Retrieved September 8, 2016, from <http://www.independent.co.uk/news/people/vivienne-westwood-interview-an-audience-of-sorts-with-british-fashions-grande-dame-10093649.html>
- Gill, A. (1998). Deconstruction fashion: The making of unfinished, decomposing and re-assembled clothes. *Fashion Theory*, 2(1), 25-49.
- Goldman, R. (2014, February 13). Here's a List of 58 Gender Options for Facebook Users. *abcNEWS*. Retrieved April 8, 2016, from <http://goo.gl/5INSxc>
- Gush, C. (2016, February 5). vetements join burberry in combining menswear and womenswear into one show. *i-D*. Retrieved March 3, 2016, from <http://goo.gl/o4Zvxz>
- Ha, J. M. (2015, March 16). '차브' 英 대중문화 아이콘으로 부상 ['Chaves' emerge as pop culture icon]. *donga.com*. Retrieved May 2, 2016, from <http://news.donga.com/3/all/20150316/70139293/1>
- Han, G. Y. (2004). *(A) study on formativeness of desconstyuctism: With special reference to Issey Miyake's fashion wor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Han, J. E. (2007). *Research of the feature of beauty of the modern club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Im, H. S., & Jeon, H. G. (2016, January 18). 헬조선 속 청년에게도 희망은 있는가 [Is there hope for young Koreans even in Hell Chosun]. *20slab*. Retrieved April 3, 2016, from <http://20slab.naeilshot.co.kr/archives/11785>
- Jang, J. I., & Lee, Y. H. (2006). Deconstructive fashion expressed in the work of Martin Margiela.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Knit Design*, 4(1), 64-77.
- Joo, S. Y., & Ha, J. S. (2016). Fashion industry system and fashion leaders of digital er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0(3), 506-515. doi: 10.5850/JKSC.2016.40.3.506
- Keum, Y. J. (2005).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 avant-garde in the fashion design of Alexander McQueen: Focusing on the aspects of deconstru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 Kim, A. J. (1998). *(A) Study on fashion design applied to the formativeness of desconstyuct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il University, Gyeongbuk.

- Kim, H. J. (199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mporary fashion and deconstructive architectur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5(3), 89-100.
- Kim, H. J., & Lim, Y. J. (1998).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modern architectural form and the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onal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40(-), 137-149.
- Kim, H. Y., & Lee, S. Y. (2006).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on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human life sciences*, 9(-), 113-130.
- Kim, J. Y., & Chun, H. J. (1997). A study of modes of deconstruction in clothing: Comparison of clothing with architec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32(-), 293-312.
- Kim, J. H., Kwon, M. J., & Lee, S. J. (1999). A study on deconstructional methods in modern fashion design and consumer acceptance.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7(4), 578-596.
- Kim, J. Y. (1995). *Deconstruction expressed in the contemporary costume: From 1980's to 1990'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S. (2015, November 16). 사라져가는 아방가르드의 소리를 찾아서 1 (넌 영감이었어!) [Find the dying sounds of the avant-garde 1 (You were inspired!)]. *WKOREA*. Retrieved April 10, 2016, from <http://goo.gl/mkRsKz>
- Kim, S. A. (2008). Characteristic analysis of the deconstructive shoes design in modern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8(1), 135-149.
- Kim, S. B. (1994). 패션디자인과 해체주의 [Fashion design and deconstruction]. *漢城大學校 論文集*, 18(1), 487-511.
- Kim, Y. H. (1998). *Aesthetic consciousness of body and clothing in the Korean modern cloth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won, H. S. (2007). The mode and the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onism expressed in fashion design: Centering on review of literatures and precedent researche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1(5), 110-123.
- Kwon, J. S. (200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cept of neo-gender expressed in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8(2), 37-58.
- Kwon, Y. J. (2015). Consumer meaning of retro fashion.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46(-), 361-374.
- Kyoung, E. J. (1996). *A study on deconstructional methods in fashion design at present tim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Lah, U. S. (2003). Study on the deconstructional fashion expressed in the popular art. *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13(-), 27-36.
- Lee, G. E. (2015a, January 9). 일상상으로의 초대 [Invitation to day-to-day]. *WKOREA*. Retrieved June 19, 2016, from <http://goo.gl/gzNs5G>
- Lee, G. E. (2015b, March 11). 마르지엘라의 후예들 [The descendants of margiela]. *WKOREA*. Retrieved June 19, 2016, from <http://goo.gl/em7ixV>
- Lee, J. H., Lee, X., & Roh, Y. S. (2011). A study on fashion design development through a postmodernistic approach to the mannish loo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1(3), 47-60.
- Lee, S. M. (2016, February 4). ['힙스터' 개성 경제학] 현실순응 거부하는 '힙스터'...변덕쟁이? 트렌드세터? [[Hipster' personality Economics] 'hipster' to deny reality, adapt...giddy? Trendsetter?]. *The Herald Business*. Retrieved June 8, 2016, fr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04000520>
- Lee, Y. Y. (2012, September 14). Yohji Yamamoto. *Navercast*. Retrieved September 8, 2016, from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5&contents_id=12900
- Lee, Y. J. (2015, December 4). "신비주의 브랜드 「베트밍」 열풍" ["Mysticism brand 「vetement」 fever"]. *Fashionbiz*. Retrieved February 3, 2016, from <http://www.fashionbiz.co.kr/WW/?cate=2&recom=2&idx=151378>
- Masion Martin Margiela. (2013). *Martin Margiela: Street Special 1 & 2*. Tokyo: Street Editorial Office.
- Mau, D. (2015, March 19). KANYE WEST BEATS OUT CHANEL FOR MOST-VIEWD COLLECTION OF FASHION MONTH. *FASHIONISTA*. Retrieved April 24, 2016, from <http://goo.gl/PGkClr>
- McDowell, C. (2001). *Jean Paul Gaultier*. New York: Viking Studio.
- Menkes, S. (2015, May 22). LVMH Prize Winners For Young Fashion Designers. *VOGUE BRITISH*. Retrieved June 19, 2016, from <http://goo.gl/q3iPC9>
- Mesure, S. (2015, November 22). Toys R Us stops telling boys and girls what to play with by dropping online gender filters. *INDEPENDENT*. Retrieved April 8, 2016, from <http://goo.gl/3gEgCQ>
- Monitoring 2016FW. (2015, October 3). *firstVIEWKOREA*. Retrieved April 24, 2016, from www.firstviewkorea.com/Board/BoardIndexView.aspx
- Na, H. S., & Chun, H. J. (2000). Through the artworks of Vivienne Westwood and Christian Lacroix: A Study on the historicism in modern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4(4), 463-474.
- Nam, H. J. (2015, June 12). norm코어는 죽지 않았다 [Normcore is not dead]. *THE HUFFINGTON POST KOREA*. Retrieved May 23, 2016, from <http://goo.gl/xjwlCh>
- Nam, H. J. (2016, May 11). 베트밍을 패러디하는 브랜드 '베트밍' [Brand 'Vetememe' to parody vetement]. *VOGUE KOREA*. Retrieved June 7, 2016, from <http://goo.gl/jtqcks>
- Nelson, K. (2015, July 20). Personal Best, When designers make clothes for themselves and their friends, everybody

- wins. *WKOREA*. Retrieved May 22, 2016, from <http://www.wmagazine.com/fashion/2015/07/new-generation-fashion-designers>
- Nylander, L. (2014, August 28). loosen up and get to know jacquemus, creator of avant-garde womenswear. *i-D*. Retrieved June 5, 2016, from <http://goo.gl/lFpYtC>
- N포세대 ['N-po'generation]. (n.d.). *Naver Korean Dictionary*. Retrieved April 10, 2016, from <http://goo.gl/DhR8rd>
- oil shock. (n.d.). *Encyclopedia of Political Science*. Retrieved April 10, 2016,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8707&cid=42140&categoryId=42140>
- Park, J. S., Song, H. Y., & Kim, H. J. (2016, January 28). 대한민국 20대, 문화를 말한다 [Korean twenties, talk culture]. *20slab*. Retrieved April 20, 2016, from <https://goo.gl/ZHdyiW>
- Park, M. R. (2003). A study on gender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5(4), 324-330.
- Park, S. Y., Kim, H. J., & Han, J. M. (2015). Dépaysement characteristics in deconstructive fashion: Focused on 2013s/s~2015s/s collection.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46(-), 231-242.
- Park, S. J. (2015). A study on the form of architecture and fashion in deconstructivism. *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52(-), 164-175.
- Park, Y. G. (2015, July 22). 천진난만한 순간 [Innocent moment]. *WKOREA*. Retrieved June 19, 2016, from <http://goo.gl/Yq2eIE>
- Re-Edition Magazine Marland Backus by Mark Borthwick. (2016). *Models.com*. Retrieved July 5, 2016, from <http://goo.gl/q8KOtK>
- Rei Kawakubo-Comme des Garçons(1942). (n.d.). *The Red List*. Retrieved June 5, 2016, from <http://goo.gl/0Ku39y>
- Sanae, S. (2005). *Comme des Garçons*. Tokyo: Heibonsha Limited.
- Shin, G. H. (2015, June 24).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Our Twisted Hero]. *VOGUE KOREA*. Retrieved June 7, 2016, from <http://www.vogue.co.kr/2015/06/24/우리들의-일그러진-영웅-3>
- Slowey, A., & Hyzagi, J. (2016, March 4). Rei Kawakubo Never Meant to Start a Revolution. *ELLE*. Retrieved September 6, 2016, from <https://goo.gl/qvgmoV>
- Son, G. H. (2015, May 11).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영감을 얻은 패션 [Inspired by fashion in Russia and Eastern Europe]. *VOGUE KOREA*. Retrieved May 15, 2016, from <http://goo.gl/tWfB5O>
- Son, I. H. (1993). 현대복식의 해체적 성향 [Deconstructive tendency of modern costume]. *浦項善隣專門大學 論文集*, 13(3), 103-135.
- Song, B. R. (2016, March 11). 뎀나 바잘리아가 말하는 베틀명 [Demna Gvasalia talks about Vetements]. *VOGUE KOREA*. Retrieved June 3, 2016, from <http://goo.gl/ECPjs9>
- SPRING 1993 READY-TO-WEAR John Galliano. (1992). *VOGUE*. Retrieved June 1, 2016, from <http://goo.gl/w6EAoE>
- SPRING 1993 READY-TO-WEAR Maison Margiela. (1992). *VOGUE*. Retrieved June 1, 2016, from <http://goo.gl/IU03CE>
- SPRING 2015 READY-TO-WEAR Vetements. (2014). *VOGUE*. Retrieved May 7, 2016, from <http://goo.gl/73jEKc>
- SPRING 2016 READY-TO-WEAR Vetements. (2015a). *VOGUE*. Retrieved June 17, 2016, from <http://goo.gl/7h8B1F>
- SPRING 2016 READY-TO-WEAR Vetements. (2015b). *VOGUE*. Retrieved June 17, 2016, from <http://goo.gl/iBJIM4>
- SPRING 2016 READY-TO-WEAR Vetements. (2015c). *VOGUE*. Retrieved June 17, 2016, from <http://goo.gl/2MA3v8>
- Tucker, A., & Kingswell, T. (2003). *A crash course in fashion* (Kim, E. O., Trans.). Seoul: Yedam. (Original work published 2003)
- vetements_official. (2016a, May 9). *Instagram*. Retrieved June 5, 2016, from <https://www.instagram.com/p/BFLs-e4MVKU>
- vetements_official. (2016b, June 29). *Instagram*.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s://www.instagram.com/p/BHN841xjiAK>
- VETEMENTS. (n.d.). *ANTONIOLI*. Retrieved June 15, 2016, from <https://goo.gl/upHz3g>
- Watt, J. (2012). *Alexander McQueen: the life and the legacy*. New York: Harper Design.
- Yohji Yamamoto, Fall/Winter 1981. (n.d.). *Pinterest*. Retrieved June 12, 2016, from <https://kr.pinterest.com/pin/4925880819377380>
- Yu, R. N. (2015a, October 2). 마르타 마르케스 & 파울로 알메이다의 '쫓창' 팬덤 [Marta Marques and Paulo Almeida 'jjitcheong' fandom]. *ELLE.CO.KR*. Retrieved June 19, 2016, from <http://goo.gl/8Bru6k>
- Yu, R. N. (2015b, September 10). 옷 만드는 슈퍼 히어로 '뎀나 즈바살리아'와 크루 [Clothing designers, superhero 'Demna Gvasalia' and crew]. *ELLE.CO.KR*. Retrieved July 15, 2016, from <http://goo.gl/5xFL6T>
- 포스트-놈코어, 그 해답은? [Post-normcore, the answer is?]. (2015, August 13). *firstVIEWKOREA*. Retrieved May 24, 2016, from <http://www.firstviewkorea.com/Board/BoardView.aspx>
- 2015년 놈코어 룩에 대한 견해 [Views on the 2015 normcore look]. (2015, July 16). *edaily*. Retrieved May 23, 2016, from <http://goo.gl/qlkQ4F>

A Study on Aesthetic Values of Neo-Deconstructive Fashion

- Focused on Vetments, Marques ' Almeida, Jacquemus -

Kim, Sung Eun • Ha, Ji Soo*

Ph.D. candidate,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advent backgrounds of Neo-Deconstructive designers and their expressive characteristics and also identify unique aesthetic values of Neo-Deconstructivism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Deconstructive fashion that prevailed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s for research methodology, literature research was conducted together with case analysis. In particular, it was based on the content analysis on interview with Neo-Deconstructive designers to analyze aesthetic values of Neo-Deconstructivism. Backgrounds of the advent of the Neo-Deconstructive fashion may be identified as skepticism about normcore fashion, increase of tolerance for diversity caused naturally from a digital environment, and desire for escaping from social-cultural anxiety through interest and fun. As a result of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n aesthetic values of Neo-Deconstructivism with those of the Deconstructivism based on common expressive characteristics, as for the aesthetic value of 'recombination of space-time', Neo-Deconstructivism showed freshness of design based on heterogeneous codes unlike Deconstructivism showing a familiar but strange image based on collectivized codes, expressing acceptance of gender diversity through 'deconstruction of gender boundary'. Through 'recombination of subcultures', it showed a style of subculture responding to needs of consumers rather than using it for resistance, pursuing to accept 'individual personality' of a consumer. Finally, it intended to suggest design embracing aesthetics of fun and play rather than rejecting the traditional ideal beauty through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 of 'deconstruction of clothing structure and design principle'. As such, Neo-Deconstructive design is the witty and fresh fashion design satisfying needs of the public based on daily item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planning and designing new products with domestic fashion brands. Besides, it is regarded to give aid to reading values of the present age through the Neo-Deconstructive fashion as the cultural symbol expressing periodic ideas and cultures.

Key words : Deconstructivism, Neo-Deconstructivism, Vetements, Marques ' Almeida, Jacquemus